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은 동아시아의 핵심인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 표준화를 기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산업자원부의 동북아 산업표준협력체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제 1차 사업(2003. 5~2004. 4)에 이어 제 2차년도(2004. 6~2005. 4) 사업의 사업수행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 목 차 -

제 1 장 사업목표 및 내용

제 2 장 사업 수행 내용

제 3 장 사업 목표별 수행결과 요약

제 4 장 향후 추진활동 방향

제 1 장 사업목표 및 내용

제 1 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동북아표준협력체(S-Dialogue)구축사업
- 나. 위탁사업명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제2차년도) 사업
- 다. 위탁계약기간 : 2004년 5월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 라. 주관기관 :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업총괄책임자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부회장 박 은 규

2. 사업 추진배경

- 가. 우리나라 국가표준 파렛트인 T-11형이 8년간의 개정작업 노력끝에 ISO 6780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2003.8.26)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이 되기 위하여는 한·중·일 및 아시아 각국에 T-11형 파렛트에 의한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선결과제이다. 이에따라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 1차년도 사업으로 2003.10.14~10.17까지 한국 파렛트업체가 주도하여 아시아 9개국(인도포함) 초청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나. 이 회의에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규격인 T-11형이 공동사용 파렛트로 대단히 우수한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파렛트를 기준으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추진하되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 국제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각 국 대표들은 모두 이에 합의하였고(MOU작성)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립안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에 동의하였다.
- 다. 한·중·일 산업표준협력체 구축사업 제2회 북경회의(2003.10.31)에서 물류부문의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2004년 3개국 전문가 WG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라. 위와같은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다음과 같은 후속사업이 필요함
 - (1)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결과 합의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상설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
 - (2)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3개국 전문가 WG회의 개최
 - (3) 아시아 각국에 대한 현지 세미나 개최

아시아 각국에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과 효과 및 T-11형 파렛트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국 국가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게 하고 자국산업에 보급 확산되도록 하여야함

제 2 절 사업수행 목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 국이 파렛트의 도입단계(공장구내, 보관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보급초기단계)에 있어 현지 세미나 및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국제기구 창설을 통하여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표준파렛트인 T-11형 파렛트를 자국의 일관수송용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물류효율화를 제고시키고 역내 국제무역의 증대를 꾀하여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국 건설에 기초 확립.

1.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 표준화 방안 협의 : 각 국의 파렛트 규격을 비교·검토하여 표준화의 범위를 합의하고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확정.
2. 한·중·일 3개국의 국제기구 창설안 제시 : 각 국의 국제기구 창설안을 취합·비교·검토후 통합(안)을 결정하여 3개국의 합의, 도출된 공통안 작성
3. 아시아 파렛트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 표준화가 핵심이며 선결과제이다. 이에 중국에도 현지 세미나를 통해 T-11형 파렛트의 우수성과, ISO 6780 국제규격 개정을 계기로 T-11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규격임을 홍보 하고 일관파렛트화 전략 추진.

제 3 절 추진전략

1.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

- 가. 1단계 : 아시아 각국(특히 중국)에 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과 T-11형 파렛트의 우수성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회의, 세미나, 초청연수 실시
- 나. 2단계 : 아시아(중국) 각국이 T-11형 파렛트를 자국의 국가표준파렛트로 채택 유도
- 다. 3단계 : 자국의 산업에 T-11형이 보급되도록 촉진 유도
- 라. 4단계 : 아시아 공동사용 물류시스템 구축(아시아 파렛트풀시스템 완성단계)

2. 추진체계

- 가. 사업주최 :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 나. 사업주관 : (사)한국파렛트협회
- 다. 사업후원 : 한국표준협회

제 2 장 사업 수행 내용

제 1 절 한 · 중 · 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 (제1차)

1. 개최개요

가. 개최일자 : 2004년 9월 21일 ~ 25일

나. 개최장소 : 한국, 서울 타워호텔

다. 주 제 : 제1차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

라. 참가인원 : 총16명(한국 8명, 중국4명, 일본4명)옵저버제외

2. 주요내용 :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 표준화 방안 토의 및 아시아 표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규격 논의

가. 아시아 표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규격(안) 제시 및 명칭, 크기, 재질, 종류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합의

나.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세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대표자를 1명씩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4월 북경에서 제2차 전문가 회의 개최 합의.

다. 아시아 파렛트표준화 추진을 위한 상설 국제기구 창설 준비 회의 : 기존의 한국측에서 제시한 국제기구 창설 안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 설립배경, 목적 등 대부분 사항을 한국 안에 동의하며 일부 어구 수정하고 추진전략 및 기구의 명칭 등은 한중일 소위원회를 거쳐 2005년 4월 북경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합의.

제 2 절 중국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현지 세미나 개최

1. 개최개요

가. 개최일자 : 2004년 10월 13~14

나. 개최장소 : 중국, 상해

다. 주 제 : 파렛트 표준화 세미나

나. 참가인원 : 약 100명(한국 3명)

2. 주요내용 : 글로벌 SCM 측면에서 본 ISO 파렛트 표준화 현황과 공동화 전략 및 한국내 파렛트 발전현황에 대하여 세미나.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동의

제 3 절 한 · 중 · 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 (제2차)

제1차 회의 시 미 합의사항에 대한 자국내 업계, 정부 등 의견을 수합하여 2005.4.15북경에서 개최기로 하였으나 중국 측 사정으로 2005.4.15 서울에서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대표자 회의로 대체기로 하고 첨부 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1.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규격(안) 미합의 사항 타결방안 협의
2.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기구 설립(안) 미합의 사항 타결방안 협의

제 3 장 사업 목표별 수행결과 요약

제 1 절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안) 제정작업

제1차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 (2004.09.21~09.25 : 서울) 및 제2차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를 위한 사전 3개국 대표 회의(2005.04.15)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합의사항

- 가. 명칭 : 아시아 표준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로 한다.
- 나. 크기 : 1,100mm×1,100mm(T-11형), 1,000mm×1,200mm 2종류로 한다.
- 다. 재질 : 목재, 플라스틱 및 기타
- 라. 종류 : 한면사용형 (2, 4방향), 양면사용형 (2, 4방향), 단면형 제외

2. 미합의사항

- 가. 최대적재하중
- 나. 파렛트의 높이
- 다. 시험방법
- 라. 시험의 선택과 성능기준
- 미. 치수 공차

※ 미합의 사항은 제 2차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에서 협의한다.(2005.06.21~06.22 : 북경)

※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안)은 일본 측이 작성하여 2005.05.31까지 중국 측에 송부한다.

제 2 절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기구 설립(안) 제정 작업

1. 3개국 기본입장의 확인

한·중·일 3개국의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나아가 아시아 각국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2. 국제기구의 성격

제1차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에서는 상설국제기구(안)에 합의하였으나 3개국 대표회의(2005.04.15 : 서울)에서 각국의 국내사정상 상설기구의 운영, 정부승인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협의 기구로 출발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3. 국제기구의 명칭

「아시아 파렛트 시스템 협의회」로 한다.

가. 구체적인 설립(안)은 한국 측이 작성하여 2005.05.31까지 중국 측에 송부하고 2005.06.21 제 2차 전문가 회의에서 이(안)을 중심으로 협의 결정한다.

나. 이상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 합의문 참조

제 3 절 해외 현지 세미나 개최

1.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아시아 각국에 현지 세미나 및 연수회 등을 통하여 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 공동사용시스템 등의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T-11형 파렛트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표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004년도 본 과제에 대하여는 중국 상해에서 2004.10.12~10.14까지 개최된 파렛트 세미나에 한국에서 2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음.

3. 한국 대표단 3명 파견

- 임재균 박사 (한국파렛트기술연구소장)

주제 : ISO 파렛트 표준화 현황과 공동화 전략

- 권안식 전무이사 (한국파렛트협회 국제전문위원)

주제 : 한국의 파렛트 발전현황

※ 별첨 「세미나 참가 보고서」참조

제 4 장 향후 추진활동방향

- 파렛트 표준화는 1국가 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현대 물류는 시스템이며 파렛트는 물류시스템의 기본이며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국제적인 파렛트 표준화 사업은 각 국가간의 자국내 물류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예 : 철도화차의 폭, 터널, 자동차 적재함 등 주 운송수단과의 정합성)대단히 어렵다.
-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은 이제 파렛트의 초기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파렛트 표준화의 추진 방향 설득(T-11형 파렛트 사용)이 용이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파렛트가 널리 보급되어 일관수송이 보편화되면 파렛트 표준화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000년부터 민간차원에서 한·중·일 3개국의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를 표준화하여 공동사용 시스템을 구축,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표준품질과 추진사업인 S-Dialogue(동북아표준협력체)구축사업에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이 선정되어 2003년 제 1차년도 사업으로 아시아 9개국 초청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과 국제기구 설립에 동의하는 합의를 채택하여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2005년 제 2차년도 사업으로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 전문가들이 WG을 결성 실질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여 아시아 표준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안) 제정 작업 및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기구 설립(안) 협의에 들어가 중요한 기본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회의 합의문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기구 설립과 이 기구에서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관련 각종 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각 국 정부에 홍보, 승인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국내 산업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을 촉진하는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하므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하겠다.
- 따라서 2005 제 3차년도 사업에서도 2차년도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 시책이 필요함.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기구 설립 추진 사업
- 아시아 표준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T-11형) 규격(안) 제정 사업
- 아시아 각국 현지 세미나 및 국내 초청 연수회 개최